

## 갈기 머리 딸 둔 엄마의 호소



▲ 조이. 사진=페이스북(The Chronicles Of Zoey)

앨라배마주에서 사는 5세 여자아이 조이 프리다는 영킴털증후군을 가지고 있다.

조이의 머리는 아무리 빗질을 해줘도 정리되지 않아 사자 갈기처럼 보이는데 이 때문에 조이의 부모는 종종 자녀를 학대하는 것으로 오해 받기도 한다.

조이의 어머니 티파니 러키유(35)에 따르면, 조이는 출생 당시 한 올의 머리카락도 없었다. 자라면서 돋은 머리카락은 곱슬곱슬하고 뿔뿔했다.

티파니는 “가족들의 머리카락은 모두 갈색이나 검은 색이지만, 조이만 금발이다. 머리카락 한올한올 곱슬

곱슬하고 자라는 속도도 느려 ‘왜 애 머리만 이렇게?’ 라는 생각이 들다가 두 살 때 영킴털증후군(UHS·Un-combable Hair Syndrome)이 있는 아이의 사연을 접하고 이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했다.” 고 말했다.

그후 영킴털증후군 모임 페이스북에 참가한 어머니는 “영킴털증후군이 있는 아이는 빠나 치아 또는 손톱 등 형성 부전을 수반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알고 2세 반이었던 딸을 피부과 전문의에게 데려갔었다.” 며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에서 영킴털증후군을 진단받긴 했지만 머리카락이 정리되지 않는 것 이외의 건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 말했다.

다만 아이와 함께 외출하면 아동 학대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2년 전부터 영킴털증후군에 대해 알리기 위해 ‘조이의 일대기’ (The Chronicles Of Zoey)라는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티파니는 “딸은 자신의 머리를 미친 머리카락이라고 부른다. 다만 딸이 자기 머리카락을 좋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은 어릴 때부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도록 가르치고 있다.” 고 말했다.

## ‘옥 문자’ 날렸다가 옥살이하게 생긴 여성



▲ 두바이 법원. 사진=페이스북(Dubai Courts)

두바이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룸메이트에게 옥 문자를 날렸다가 2년 옥살이를 할 처지에 놓였다.

영국 국적의 이 30대 여성은 지난 10월 룸메이트와 말다툼을 벌였다. 지저분한 식탁을 두고 시작된 언쟁은 메신저에서도 이어졌다.

이 영국 여성은 지난달 30일 고국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영국행 비행기에 올라 이륙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공항 관계자들이 그녀를 찾아와 형사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에 두바이를 떠날 수 없다는 설명과 함께 여성을 경찰서로 연행했다. 경찰서에 도착한 그녀는 자신의 옛 룸메이트가 자신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룸메이트는 과거 메신저로 언쟁하던 중 그녀가 보낸 옥 문자를 문제 삼았다.

이 여성은 “소지품도 모두 영국 집으로 보내고 비자도 곧 만료된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몇 달 전 문자 하나를 문제 삼는 게 말이 되느냐?” 며 고소 취하를 간청했지만, 전 룸메이트가 딱 잘라 거절했다. 만약 두바이가 여성을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경우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더구나 두바이는 법적 절차가 길고, 사건 처리에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숙박비, 법정 수수료, 만료 비자 벌금 등 체류비로 순식간에 많은 돈을 잃을 수도 있다.

2017년 두바이에서 운전자에게 ‘손가락욕’을 했던 한 관광객은 두바이에 재입국했다가 5주간 경찰서에 구금되기도 했다.

## 100세 노인 법정에서 세운 독일



▲ 나치 강제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100세 남성이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튜브(AFP Español) 캡처

독일의 과거청산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또다시 전해졌다.

독일 검찰이 1942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 강제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으며 전 나치 친위 대원이었던 100세 남성을 기소했다.

지난 8일 AFP에 따르면 현재 브란덴부르크에 살고 있는 이 남성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베를린 북서쪽에 위치한 작센하우젠 수용소에서 근무했다. 독일의 주요 나치 강제수용소로 꼽히는 이곳은 지난 1936년 세워졌으며 총 20만 명이 보내져 이중 10만명이 병, 강제노동, 처형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독일 검찰은 총 3,518건의 살인사건에 대한 종범으로 이 노인을 기소했으며 그가 의도적으로 살인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독일 검찰은 사흘 전에도 70여 년 전 나치수용소에서 비서로 일했던 95세 여성을 1만 명의 살인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이 여성은 수용소 사령관의 속기사와 비서 업무를 맡았으며 근무 기간 중 총 1만 명이 학살됐다.

독일은 나치 시절 학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알고도 만류하지 않았거나 피해자들을 도피시키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묻고있다.

통증 전문  
치료 병원

#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7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이지 초이스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시간: 월~금 9am~6pm  
화 1pm~6pm/토 9am~12pm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사론  
한의학,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의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